

불행을 극복하는 방법 🍀

오리건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코벨리 여사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.

"나는 국방성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습니다.
내가 가장 사랑하던 조카가 전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
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슬픔에 쌓였습니다.
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.

사직서를 내려고 책상을 정리하는데,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.
몇 년 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카가 내게 보낸 편지였습니다.
조카는 그 편지를 통해 나를 위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.

조카의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.
'물론 모두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특히 더하실 겁니다.
그러나 아주머니는 꼭 이겨 나가실 겁니다.
저는 항상 웃으시며 이 모든 일을 남자답게 대하라고 하신 아주머니의 말씀을 늘 기억할 것
입니다.'

마치 조카가 내 옆에서
'아주머니, 저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해보세요.
무슨 일이 있더라도 슬픔을 감추고 웃으면서 헤쳐 나가세요'하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
니다.

그래서 나는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.
나는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도 보내고 성인 교육반에도 나갔습니다.
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쓰라림은 모두 없어지고 마치 내 조카가 바랬던 것처럼 매일을 즐겁
게 보내고 있습니다.

<근심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고 웃어라/데일 카네기>

🍀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